

## 전국민의료보험 : 이제 서비



尹成泰  
의료보험연합회 회장

을

7월 1일은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77년 당시 국민소득이 천 불에 지나지 않던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 속에서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다 보니 전국민의료보험의 실현이 과연 성취가능한 목표인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 일부의 회의마저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국민의료보험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정책목표와 그 당위성에 따라 1989년 7월 전국민의료보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제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

독일과 같은 선진 의료보장국가가 근 1세기에 걸쳐 서야 이룩한 전국민의료보험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12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성취해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를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석학으로 구성된 국제경제조사협회(NERA)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를 “성공적인 제도로서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발전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많은 나라의 대표단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짧은 기간에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될 수 있었던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책추진 과정을 배워가고 있다.


국제사회보장협회(ISSA)는 사회보장의 두줄기 큰 기둥을 『적용범위의 확대』와 『서비스 수준의 향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는 전국민의료보험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적용범위의 확대는 마무리 지었고, 그간 양적 성장의 그늘 속에서 다소 미흡하였던 서비스의

## 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 의료보험의 발전과제로 남아 있다. 『서비스 수준의 향상』은 보험급여 수준의 향상과 각종 절차상의 신속·편리성의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보험급여 수준의 향상은 보험급여 비용의 증가와 연동되며, 이는 곧 국민의 보험료 부담과 상응된다. 국민부담의 증가없는 보험급여 수준의 향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급여수준의 향상은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향상된 국민보건 수준은 '건강한 국민'에서 더

나은 국부(國富)를 창출한다. 보험급여 비용은 단순 소비가 아니라 재생산을 위한 투자이므로 급여수준에 상응한 보험료 수준은 마땅한 것이다. 1996년도 한해 담배값 약 4조 3천억원에 총의료보험료 약 4조 2천억원인 점은 우리 의료보험료의 수준을 시사한다. 따라서 『저부담 저급여』에서 『적정급여 상응부담』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할 때다.

이제 전국민의료보험의 성과는 보다 나은 의료보험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분들의 의료보험에 대한 애정과 협조를 기대해 본다. 

---

우리는 전국민의료보험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적용범위의 확대는 마무리 지었고, 그간 양적  
성장의 그늘 속에서 다소 미흡하였던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 의료보험의 발전  
과제로 남아 있다.

---